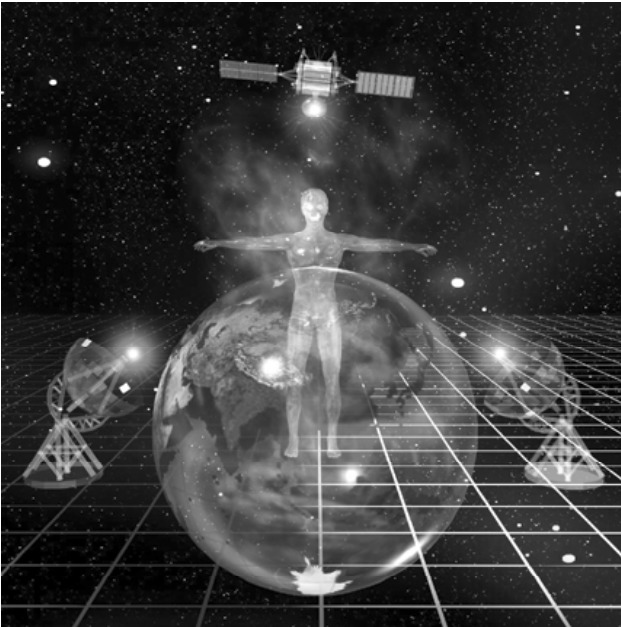


정량적 다우징 방법에 의한 생명 에너지 연구

| 로저 테일러 | 이명수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다우징을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는 방법이라고 인정하는 저자는 최대한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다우저의 맹검법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또 다양한 다우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오르고나이트

수지 속에 고착된 금속 입자들(오르고나이트)은 빌헬름 라이히의 오르곤 에너지의 출처로서 거동한다. 다우징 막대로 그러한 에너지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다우징함으로써 다음을 발견했다. 오르고나이트의 활동은 태양에 의존하고, 마이크로파에 의해 제거되며, 물과 그 밖의 물질에 의해 오르고나이트로부터 유리된다. 오르무스 (데이비드 허드슨이 발견한 백금)가 이와 유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오르곤 에너지의 존재는 출처 내에서 일종의 양자 결맞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사된다.

오르무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는 생명에 유리하고 인체의 생명 에너지와 흔히 동일시되며 전통적으로는 기(氣), 프라나(prana) 등으로 알려진 에너지인 오르곤(orgon)을 확인했다. 그는 오르곤이 금속과 유기물의 호층(교대로 쌓여진 층: 편집자 주)으로 이루어진 벽으로 둘러싸인 상자 내에 집적되는데, 민감한 사람 또는 다양한 물리적 수단에 의해 감지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최근에는, 단순히 금속 입자를 비전도성 기질 (대개 합성수지)에 통합시킴으로써 강력한 오르곤 출처를 만들 수 있음이 주장되었다. 그러한 물질은 오르고나이트(organite)라고 불렸는데 이 물질을 발견한 칼 벨츠(Karl Welz)는 자신의 라디오닉스 장치에서 이를 사용하고 특허를 획득했다.¹⁾ 현재 오르고나이트에 관하여 여러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일부 사이트는 오르고나이트가 환경 치유 등²⁾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이트들은 그 기술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³⁾ 비록 오르고나이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감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아직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완전히 객관적인 감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정량적 다우징(dowsing: 수맥 또는 광맥 탐사) 방법을 상술한다.

물리학자이자 전문 다우저 제임스 라이언스(James Lyons)^{4),5)}가 시사한 결과로서, 필자는 그러한 에너지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 필자가 하는 것은 지면(가급적 야외에서 잔디 위에)에 물체를 놓은 뒤 다우징 막대를 잡은 채 그 물체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걸어가는 동안 막대는 하나 이상의 간격으로 서로 교차하고 (하나 이상의 오라aura 고리를 가리킴) 출처 위에서 다시 교차한다. 지면에서 출자로 이 출처로부터 필자의 발등까지 거리를 적어서 이 고리의 반지름을 기록한다. 제임스 라이언스가 예측한 대로, 필자는 가장 안쪽 고리의 반지름이 출처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출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 측정에 관한 것이고 센티미터가 아니라 인치로 주어진다.

오르무스(ormus)는 현재 백금이라고도 알려진, 일련의 특별한 원소 물질에 주어진 이름이다. 주로 귀금속으로 여겨지는데 전자의 배열 방식이 이 물질을 비금속, 화학적으로 비반응적이고 어찌면 초전도적으로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다.⁶⁾

다우징 방법의 정량적 특성에 대한 검사

가장 안쪽 고리의 반지름과 다우징으로 탐사되는 에너지 발산 물질의 양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해염에서 얻은 알칼리 침전물을

일정량 다우징했다. 이 침전물은 오르무스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출처 근처에서 잦은 측정값들은 필연적으로 약간 애매하기는 하나, 이 관계는 선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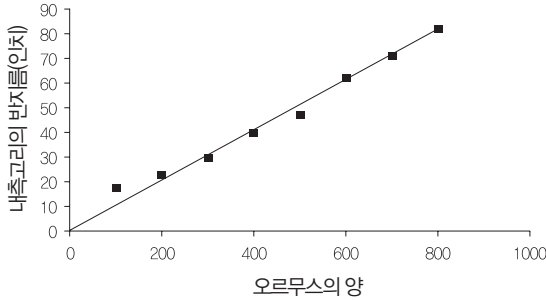


그림 1.

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다음은 필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그 밖의 출처들이다:

레이저, 라이프(Rife) 요법 기구, 비전도성 코일, 토션장 발생장치, 버키볼(buckyball)이라는 탄소 분자를 함유하는 치유 광물 셉기트(Shungite), 오존 처리된 물, 브라운의 가스 발생장치, 인체. 나중에 논하겠지만, 이들 중 다수는 대규모의 양자 결맞음(quantum coherence)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반복 가능성, 그리고 독립 측정

오르고나이트 에너지가 태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반해(그림 2 참조) 다른 출처들의 에너지는 대부분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

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는 오후 6시 30분 즈음에 최대치에 도달했는데 이는 미국 동부 주에서 오전 12시 30분경 솔라 맥 시뮴에 상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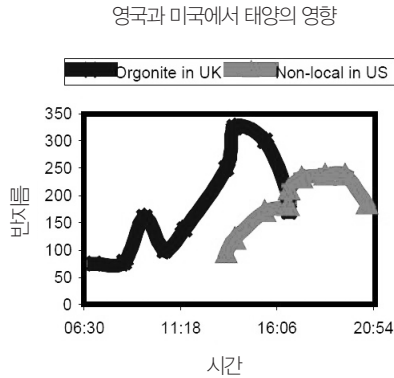


그림 3.

다양한 물체 다우징하기

오르고나이트로 된 다양한 물체의 에너지를 조사했다. 첫 번째 물체는 캐나다의 알렉산더 에마드에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으로 식물의 성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⁷⁾ 필자 스스로 만든 물체 중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알루미늄 합금 터닝으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약 30cm이고 가운데가 비었으며 러시아에서 최근에 건축된 초대형 피라미드와 같은 기하구조이다.^{8), 9)} 5개의 꼭짓점 각각에는 석영 결정이 있다. 나침반 방위 효과를 검사하자, 강도는 N-S 각도보다 N-S를 바라본 면에서 7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르고나이트 조각들의 중앙에는 결정을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 에너지 강도가 석영 결정에 의해 크게 증가된³⁾ 반면, 안티몬(금속 원소의 일종: 편집자 주) 결정이 석영보다 현저히 더 낮

다는 것은 예상외이고 두드러진다. 이 발견으로 필자는 안티몬 입자로 오르코나이트 조각을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가장 활성이었으나 몇 주 후에 수행한 재검사에서는 완전히 비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 동안, 전에는 활성인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오르코나이트 조각에는 바닥의 구멍도 아니고 단순히 접점에 있는 커다란 안티몬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각도 안티몬을 제거한 후에는 비활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닷새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에도 계속 그러했다. 그러나 한 달이 더 흐른 지금은 다시 활성 상태가 되었다.

그런 다음 필자는 러시아인들에게 사용한 같은 기하학의 거대(2.5m) 피라미드를 짓고⁸⁾, ⁹⁾ 그것을 N-S 방향으로 놓았다. 금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판으로 된 이 피라미드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하게 다우징되었다.

차폐

오르코나이트 조각을 다양한 물질들로 덮은 뒤 다우징했다. 2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상자 안에 두자 다우징 영역이 감소했고, 스티로폼으로 절연한 냉각 박스 안에 두자 다우징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반면에 금속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는데 무쇠 주전자조차 그러했다. 그러한 차폐는 태양, 또는 다우징 영역, 또는 둘 다의 영향을 받아 간섭될 수 있다. 이를 검사하기 위해 필자는 오르코나이트 위에 헤비 스테인리스강 압력솔 뚜껑 또는 앞서 언급한 냉각 박스 뚜껑의 그림자가 드리우도록 배열했다. 플라스틱은 강도를 크게 감소시킨 반면 금속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르고나이트 아래에서 다양한 물질에 에너지 모으기

다양한 금속들을 오르고나이트 밑에 두고 그 금속들에 에너지가 집적되는지 알아보았다. 석영에 에너지가 잘 모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데, 화강암과 모래처럼 석영을 함유한 광물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물들은 최소한 수일 동안 에너지를 보유했다. 대부분의 금속(철, 알루미늄, 및 황동이 검사됨)은 매우 신속히(수 초 내에) 에너지가 모였고, 약 1분 동안만 그 에너지를 보유했다. 그 외 대부분의 물질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검사를 수행한 다수의 결정 화학물질 중에서 설탕이 약간 활성을 얻었는데 아마도 엡섬염처럼 결정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안티몬에 의한 높은 흡수는 예상 밖으로 두드러졌다. 반면에 비스무트는 비록 안티몬과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둘 다 결정 물질이고 반자성이 매우 높음) 감지될 정도로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았다.

오르곤 또는 오르고나이트로 물 충전하기

에너지 집적에 석영과 안티몬만큼 좋거나 더 나은 것이 물이었다. 물은 물론 동중요법에서처럼 정보저장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자는 이를 한층 더 조사했다. 이 첫 번째 실험에서 오르고나이트 피라미드는 적어도 라이히가 발명한 오르곤 집적기만큼이나 물에 에너지를 집적했다. (작은 오르고나이트 조각으로 수행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 물에 에너지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 경로를 검사했다. 이는 30분 조금 넘어서 최대에 도달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물이 한번 끓고 난 뒤, 전자레인지(마이크로파)로

표 1.

| 출처 | 시간 | 반지름 |
|-------------|-------|-----|
| 오르곤 집적기 | 48시간 | 49 |
| 오르고나이트 피라미드 | 48시간 | 107 |
| 소형 오르고나이트 | 0분 | 0 |
| | 15분 | 27 |
| | 38분 | 72 |
| | 105분 | 81 |
| | 1440분 | 85 |
| 끓임 | | 95 |
| 마이크로파로 끓임 | | 95 |

다시 한 번 끓는점까지 끓고 나서도 여전히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우징으로 탐사 가능한 에너지의 비국소적 전이

칼 벨즈의 웹사이트¹에는 로고가 하나 있는데 이 로고는 미국의 그의 집에 있는 장치 중 하나인 오르고나이트 블록 근처에 인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사본이다. 그는 이 로고를 다운받아 에너지를 느껴보도록 했다. 필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에너지를 충분히 쉽게 다우징할 수 있었다. 추후 검사에서 필자는 검정색 잉크로 어떤 상형문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를 복사하고 오르고나이트 조각 아래에 사본 한 장을 둔 다음 30m쯤 떨어져 다른 한 사본을 다우징했다. 다우징 에너지의 전이가 명백했다(표 2). 다른 이미지를 다우징할 때 전이 강도는 벨즈의 주장대로 두 이미지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사본이 많이 존재하면 이미지의 독특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는 그에 따라 희석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표 2의 마지막 두 행에서 확인된다. Orb 사본을 10개 더 만들어서 오르고나이트에서 멀리

표 2.

| 오르고나이트 아래에 있는 이미지 | 다우징 된 이미지 | 반지름 |
|-------------------|-----------|-----|
| 상형문자 이미지 | 동일한 상형문자 | 64 |
| 상형문자 이미지 | 유사한 상형문자 | 59 |
| 상형문자 이미지 | 검정색 사각형 | 32 |
| 상형문자 이미지 | 녹색 점 5개 | 0 |
| 상형문자 이미지 | Orb | 0 |
| Orb | Orb | 85 |
| Orb (+사본 10개) | Orb | 40 |
| Orb (사본 태움) | Orb | 70 |

떨어진 집에 보관했다. 이미지 원본을 다우징한 후, 이 사본들을 불에 태운 뒤 이미지 원본을 다시 다우징했다.

라디오닉스에서는 흔히 취급 대상자로부터 잘라낸 머리카락을 증인으로 사용한다. 머리카락에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필자는 필자의 머리카락 두 올을 샘플로 잘라서 그 사이의 전이와 필자의 머리카락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으로의 전이를 비교했고, 그 반대로도 비교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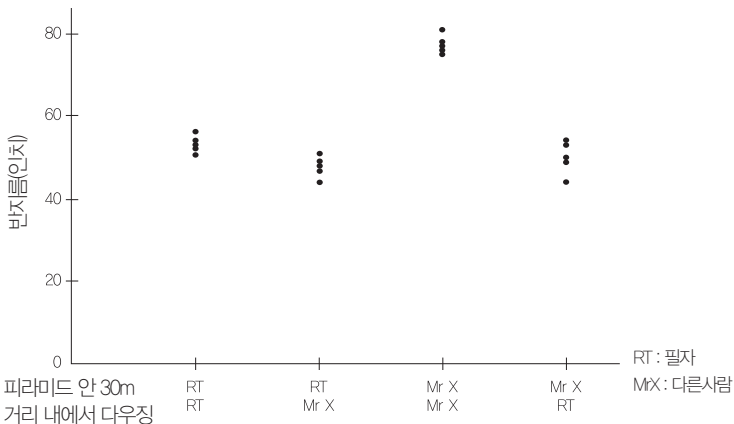


그림 4. 머리카락 샘플에 의한 피라미드 에너지의 비 국부적 전이

이 경우, 예컨대 잔디밭의 데이지꽃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여 측정값을 무의식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서 머리카락 샘플에 접근함으로써 다우징 반복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마이크로파가 오르고나이트에 미치는 영향

몇몇 웹사이트는 오르고나이트 조각을 통신철탑 근처에 둔다고 보고하는데 오르고나이트가 철탑의 해로운 영향을 중화시키거나 (그러나 듣자 하니 객관적 증거는 없음) 나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건강에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²⁾ 마이크로파의 출처로 필자는 필자의 무선 전화기의 거치대를 사용했다(필자는 때때로 두통을 겪는 등 마이크로파의 영향을 체험했다. 이는 전화를 거치대에 다시 올려놓자마자 마이크로파 방출이 차단되는 독일산 제품으로 바꿀 때까지 계속되었다). 필자는 마이크로파 출처가 오르고나이트 근처에 있으면 오르고나이트의 일반적인 영향을 다우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의 다우징 능력을 교란하는 마이크로파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필자는 거치대를 필자 가까이, 오르고나이트로부터 멀리 두었다. 이제 보통의 고리들을 다우징할 수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마이크로파가 오르고나이트에 직접 작용하면서 그 탐사 가능한 영향력을 차단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전화를 켜다가 끄므로써 마이크로파의 영향력은 안티몬의 그것과 달리 일시적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30분 동안이나 전화를 켜놓았어도 일단 전화를 끄면 오르고나이트 영역은 즉시 회복되었다.

토션장과 비전도성 코일장 다우징

몇 년 전부터 필자는 알렉산더 스피겔먼으로부터 입수한 작은 토션장 발생장치를 사용해왔다.¹⁰⁾ 예비 검사에서 이 장치의 다우징 능력은 매우 강력했다. 오르코나이트로부터 나오는 장과 대조적으로 토션장의 영향은 국소적 환경에서 지속되는데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치운 뒤 심지어 일주일도 지난 뒤에도 여전히 감지될 수 있었다. 몇 가지 유형의 비(또는 저)전도성 코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존 로건의 방법에 따라 만든 피비우스 코일³⁾은 특히나 활동적이었는데 전기를 입력하지 않고 다만 코일의 양끝을 연결함으로써 다우징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출처에 대한 다우징 반응은 다우징 막대가 교차와 교차 사이에서 강하게 벌어진다는 점에서 오르코나이트에 대한 반응과 달랐다.

오르무스의 양자 터널링

여기서 사용된 제제는 사해염에서 얻은 알칼리성 침전물이었다.⁶⁾ 이는 아마도 대부분이 수산화마그네슘일 것이다. 원래 사해염 결정체는 다우징될 수 있는 활동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르무스가 이런 식으로 다우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르무스가 고체 장벽을 통과하여 양자 터널(quantum tunneling)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얇은 PVC로 된 두 관을 겹쳐 놓고 그 안에 플라스틱 스페이서로 분리된 네오디뮴 자석축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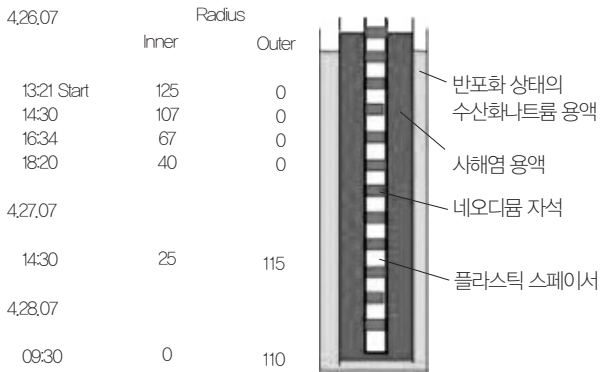


그림 5. 양자 터널의 실험

이 실험의 의도는 만일 오르무스 원자가 초전도체라면 자석과 척력이 작용하여 안쪽 관의 벽을 뚫고 바깥쪽 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깥쪽 관에는 반포화 상태의 소금물을 넣었다. 오르무스가 알칼리 금속에 끌린다고 하므로 오르무스 전자가 이 특성으로 인해 바깥쪽 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랐다. 자석을 넣고, 각 관의 내용물을 간격을 두고 따라낸 다음 다우징을 하고, 따라낸 내용물을 도로 부었다. 실험 첫날 오후에는 안쪽 관의 측정치는 차츰 감소했지만 바깥쪽 관에는 아무것도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나타났고 사흘째가 되자 바깥쪽 관에서 모든 활동이 발견되었다. 안쪽 관에서 다우징 가능한 물질이 없어지고 바깥쪽 관에서 다우징된 물질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시간적 차이는 이 물질이 중간에 있는 플라스틱 벽을 통과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억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5). 이 실험을 소금 없이 반복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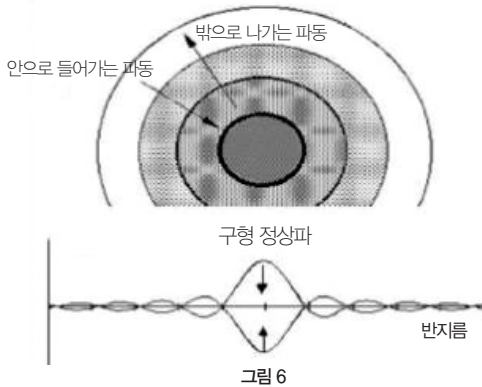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우징은 결코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일 과학 연구에 다우징을 사용한다면 다우저의 능력을 맹검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맹검법을 시도할 때에는 보조원이 동전을 던지고 두 개의 상자 A와 B 중 하나의 아래에 오르고나이트 조각을 둔다. 필자는 처음 8번의 검사에서는 정확히 다우징을 했지만 다음 7번의 검사에서는 무작위 결과만을 얻었을 뿐이었다. 이 현상은 다우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것이다. 검사 절차는 미세한 의심 요소를(특히 회의적인 검사자가 있을 때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다우저의 무의식에 도입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데 쓰게 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필자가 측정치의 반복 가능성에서, 그리고 특히 예상치 못한 다수의 결과로부터 무언가 실재적인 것을 다우징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한 주관적인 데이터를 입증할 더 나은 방법은 다른 다우저들이 같은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적절한 때에 그림 2에 나타난 결과가 더욱 확증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우저들이 반응하는 특정한 실험 상황의 측면이 저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들 모두가 이 결과를 반드시 확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라이히의 연구가 주류 과학 내에서는 여전히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제임스 드메오(James DeMeo)^{(11), (12)}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확인 및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메오의 연구 결과로서 라이히의 온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해소되었다(과연 필자가 이 연구를 반복했는데 최소한 필자 자신은 만족한다). 그럼에도, 비록 라이히가 그만의 이론을 만들기는 했지만 주류 물리

이론과의 적절한 연결고리는 지금까지 아직 없어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논의를 위해 오르곤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경고다. 필자가 몇 가지 영향력을 다우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실험 상황에서 그러한 영향력이 반드시 모두 동일한 물리적 실재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시 제임스 라이언스의 제언에 따라 필자는 밀로 볼프(Milo Wolff)의 이론¹³⁾을 살펴보았다. 그는 입자 같은 것은 없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전자는 그림 6에 나타난 것처럼 에테르에 있는 정상파이다.



파동은 우주의 중심에서 나오고 다시 우주의 나머지에서 반사된다. 그러한 파동 시스템은 완전히 결맞는데 그 내부에 공간이 없고 이곳 또는 저곳을 정의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정확히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어떤 초전도체 또는 레이저 같은 인공 결맞음 체제에서 획득되는 바로 그 조건이다. 여기서 전자건 원자건 모든 입자는 하나로 행동한다. 생명체도 그러한 양자 결맞음의 중심이며, 이 점이 인체 통합된 특성, 그리고 전체론적 특성을 설명한다고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다. 14)

초전도성은 오르무스⁶⁾, 또는 적어도 일부 오르무스의 특이한 속성이며, 어떤 특별한 현상을 설명한다고 여겨진다. 그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밀폐된 관 외부에 오르무스를 포함하는 유체의 방울이 맺히는 것이다. 이는 오르무스 원자가 양자 터널링으로 밖으로 나가서 약간의 물을 함유할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된다.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이 제언을 지지한다. 여기서, 우리는 원래 사해염에는 다우징 가능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알칼리성 침전 절차는 오르무스 원자를 집단 결맞음 상태로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오르코나이트도 일종의 결맞음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제안된다. 여기서 필자는 전자 클러스터¹⁵⁾가 금속과 수지가 합류하는 곳에서 어떻게든 형성될 수 있다는 제임스 라이언스⁴⁾의 제언을 차용한다. 보통 때 전자는 페르미온(fermion)으로서 분리된 개체로 행동하지만 전자가 결합하여 쿠퍼 쌍(Cooper pair)을 이루면 보손(boson)이 되고, 그러면 전자의 개체성이 사라지고 초전도체에서 관찰되는 대규모 양자 결맞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1,000개 이상이 결합한 훨씬 더 큰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들도 보손이므로 오르코나이트 내에 대규모의 양자 결맞음도 생길 수 있다. 금속입자는 아마도 전자 클러스터의 매체를 통해서 결맞음 상태로 자가조직될 수 있는 진동 쌍극자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태양의 힘과 오르코나이트에서 나오는 다우징 가능한 에너지의 강도 사이에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 태양 방사 내에 어떤 요소가 관련 있는지는 추측의 문제이지만 금속으로는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요소가 전자기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플라스틱으로 차단된다는 것은 그 요소의 특

성이 오르고나이트에서 다우징된 에너지와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에너지가 금속에 의해서는 잠시 보유된다는 필자의 발견과 더불어, 오르곤이 금속에 ‘일단 인력이 작용했다가 다시 척력이 작용’하지만 유기물에는 흡수된다는 라이히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오르고나이트에서 나오는 다우징 가능한 장을 억제하는 영향력의 효과이다. 마이크로파의 경우에서 우리는 마이크로파가 어떻게 전기적 결맞음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르고나이트의 기본 구조가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므로 결맞는 장은 마이크로파의 출처를 제거하고 나면 이내 재설정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것이고 과연 그렇게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안티몬의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하다. 이는 화학적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토션장과 오르고나이트에서 나오는 장은(전자기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는 면에서) 둘 다 미세 에너지장이기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10),15)} 토션장은 지속적인 흔적을 남긴다. 반면, 오르고나이트에서 나오는 다우징 가능한 장은 지속성에 아무런 증거를 주지 않았다. 적어도 잔디밭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 실험한 상황에서는 그러했다. 그러나 석영의 에너지 집적 능력을 고려한다면 모래 위에서는 약간의 지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양자 결맞음의 속성은 생명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¹⁴⁾ 생명체가 열역학 제2법칙을 거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성이다. 따라서 오르고나이트, 그리고 라이히의 오르곤 집적기도 과연 생명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오르고나이트에서 나오는 양자 결맞음 장은 복잡성 증가와 높은 수준의 통합을 선호하면서 반 엔트로피 (또는 신티로피)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 오르고나이트

에서 나오는 이 장은 다우징으로 탐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명백히 손으로 감지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이는 인간의 오라와 정확히 닮아 있다. 오르고나이트를 흥미로운 관찰 재료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생명현상을 증가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르고나이트 조각을 여러 장소에 분배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르고나이트 조각을 ‘신성한 수류탄’이라 부름) 그렇게 하면 주변환경이 결과적으로 개선된다고 주장한다.²⁾ 그리고 호수에 던지면 오염을 청소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효과에 대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알기로는 오르고나이트에서 나오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알렉산더 에마드의 식물 성장 촉진 효과 밖에 없다.⁷⁾

그와 유사한 생명 에너지는 아마도 최근에 러시아에 건설된 거대 피라미드^{8),9)}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일 것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있는 과학자들은 물질의 물리적 속성, 식물의 성장 촉진, 그리고 박테리아 감염과 암에 대한 쥐의 저항력 증가의 변화 같은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결과를 갖고 있다. 일부 피라미드는 그 주변의 생태에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이는 고무적이다. 이 피라미드들은 생태계 전체의 복잡성을 복원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는 생태계 자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볼 때 예상되는 결과이지 싶다.


감사의 글

필자는 본고의 논의에 많은 도움을 준 제임스 라이언스와 필자의 축정을 재연해 준 애드리언 인클리던 웨버에게 감사드린다.

참고

1. <http://www.hscti.com>
2. <http://www.cloud-busters.com>
3. <http://www.littlemountainsmudge.com>
4. Lyons, J.W., Dowsing: A doorway to quantifying non-localized effects in consciousness studies. In Towards a Science of Consciousness, Tucson, Arizpna, April 27-May 2, 1998.
5. James Lyons, Personal communications, 2007. And see addendum.
6.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 Also my articles: Ormus—a New State of Matter? Caduceus 71 Spring 2007, 25-29, and Magic and Mystery of Ormus Elements, Nexus 14(2) 35-40, 2007.
7. <http://www.quebecorgone.com>
8. <http://www.gizapyramid.com>
9. DeSalvo, John. The Complete Pyramid Sourcebook, 1st Books, 2003, ISBN 1-4107-8042-2.
10. <http://www.pmicro.kz/~uf1/ALMANACH/Axion A.htm>
11. The Orgone Accumulator Handbook, Natural Energy Works, 1989. ISBN 0-9621855-07
12. <http://www.orgonelab.org>
13. <http://quantummatter.com>
14. The Rainbow and the worm by Dr Mae-Wan Ho. 2nd Ed. 1998. World Scientific. ISBN 981-02-3427-9.
15. <http://www.svn.net/krscfs/Charge%20Clusters%20In%20Action.pdf>

제임스 라이언스에 의한 부록

최근의 연구는 양자 진공에서 정상파의 결절조화구조가 ‘의도’와 같은 정신 기술과 엘로드 같은 표시 장치를 사용하여 쉽게 감지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모든 물체는 이 장에서 자기만의 정상파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다우저에 의해 식별된다. 고립된 물체는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발생하는 파동의 스냅샷 같이 자기 주변에 여러 개의 고리를 유도한다. 이 고리들의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고 숙련된 다우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은 다우저가 어느 물체에나 들어있는 고유한 에너지 밀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기술을 제공한다. 물체 주변에 생기는 고리(결절) 반지름은 그 물체에 들어있는 에너지 밀도에 직접 비례한다.(끝) 

- 이 글은 ‘Studies on Life-Energy’ by means of a Quantative Dowsing Method’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로저 테일러 박사(Roger Taylor PhD.) | 면역학 박사. 브리스톨 대학에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 산하 면역 연구 그룹을 만들어 면역 내성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다. 지난 18년간 미묘한 에너지의 과학적 기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다. 커듀시어스 저널Caduceus Journal의 과학 편집자/기자이며 2007년 봄 통권 제7호에 그가 쓴 오르무스 기사가 실려있다. 저자에게 문의사항이 있으면 rogerbt@onete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역자 | 이명수 지금여기 번역위원 |